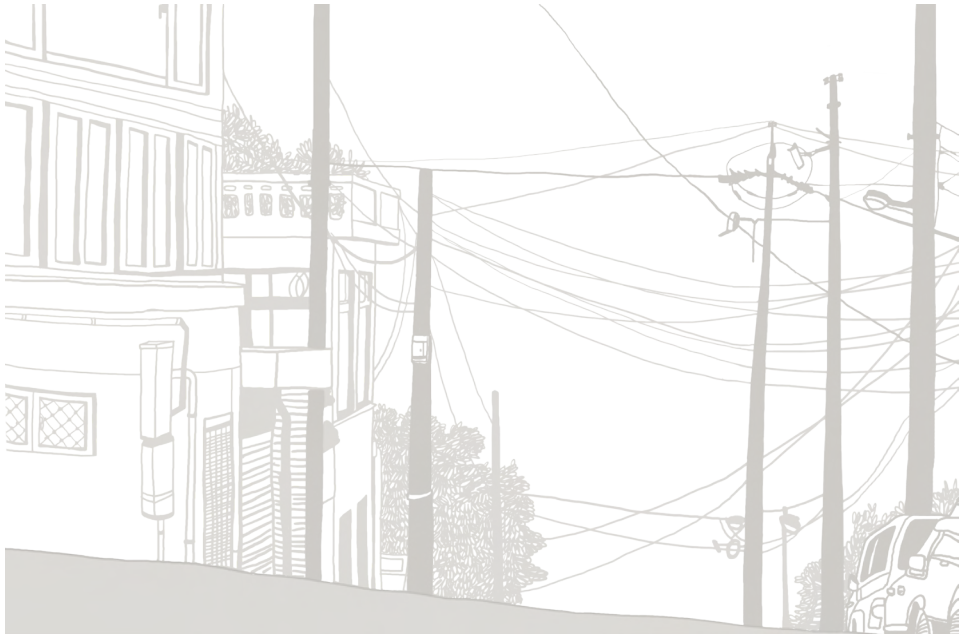


청소년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중원마을을 부탁해

마을과 우리, 2022





청소년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중원마을을 부탁해 활동영상

목 차

이 책의 맨 앞에	4	격려사
	6	중원2마을 소개
	8	사업소개
마을과 사진	11	대원중학교
	23	성남동중학교
	43	성남문원중학교
	55	성남은행초등학교
	77	금광청소년문화의집
	91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
사진과 이야기	105	금광중학교
마을과 식물	129	대일초등학교
	135	상원초등학교
	141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수자인금광
	147	월드비전성남종합사회복지관
에필로그	152	에필로그

청소년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중원마을을 부탁해

마을과 우리, 2022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13개의 학교와 기관이 협력하여 함께 크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이 키우는 아이 마을을 키우는 아이”라는 슬로건으로 10대들과 마을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맞추어 가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을 활동 중 청소년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는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장기프로젝트입니다. 10대와 마을 활동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다양한 변주를 거듭하며 지속 되어 온 청소년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가 올해는 “마을과 우리, 2022”라는 이름으로 버전업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청소년은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임을 분명히 하며, 각자가 딛고 있는 마을을 잘 들여다보고 마을과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어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상의 변화를 끌어가는 활동까지 따로 또 같이 진화해온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가 2022년에는 사진과 식물을 매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더 깊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10대들이 찍은 마을 사진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10대들이 꽃피운 작은 식물들이 건네는 위로를 기꺼이 받아 안으며, 처음 마주한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상황을 견디고 버텨내며 혼자가 아닌 ‘우리’를 말하는 10대들의 이야기를 환대하고 싶습니다.

총체적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지금의 10대들이 삶에 지치지 않고 희망 고문당하지 않으며 삶의 주인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조금 더 용기 있게 찬찬히 서로를 마주 보며 눈 맞추고 이야기하는 내면의 힘을 갖기를, 누군가의 고통에 무감하지 않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믿을 만한 어른으로 10대들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마을 선생님들의 버티는 힘과 용기가 지속되기를, 그래서 함께 함으로 더 커지고 행복해지는 생생한 세계를 넓혀가자고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봅니다.

10대들과 마을 활동을 화두로 다른 삶을 기획하고 경험하게 해 주신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마을 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성남교육지원청에도 감사드립니다.

10·29 참사로 마음이 무거운 연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직면할 용기와 충분한 애도, 서로에 대한 토닥임과 위로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 아닐까요. 마을과 우리, 2022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함께의 온기”가 지역사회에도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장 장 다 교

중원2마을 소개

청소년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중원마을을 부탁해

성남시청소년재단 『마을이 멘토다』와 함께한 8년간의 발자취

2015

청소년도 시민이라는
개념 확립

-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
- 민주시민교육, 마을의 강점과 문제점 탐색
- 활동 책자 발간

2016

청소년 공론장 마련과
청소년 역량 키우기

- 청소년 대표자 협의회
- 공동체 미술로 마을 고민하기
- 활동 책자 발간

2017

마을 활동의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
(청소년 참여, 협력,
민주적 운영, 지속 가능성)

- 동아리별 마을 활동
(따로 또 같이의 실천)
- 중등 대표자 협의회
- 퍼실리테이션 교육
- 활동 책자 발간 및 출판 기념회

2018

청소년이 직접 의제 발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계획 수립

- 청소년 기자단 구축
- 미디어 교육
- 마을 신문 발행

2019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
리더로서 마을 활동 주도

- 청소년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마을 활동 프로젝트
- 보드게임 교육
- 성남시 청소년 보드게임 대회 개최

2020

배워서 나누기, 나누며 배우기

- 보드게임 제작 재능기부 봉사 활동
- 청소년 보드게임 교육
- 보드게임 제작 및 나눔

2021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활동 기획

- 코로나19에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제작·배포
- 환경 및 마을교육, 보드게임 창작 교육
- 환경·마을 보드게임 제작

2022

봉사하는 청소년 리더되기

- 마을 사진 아카이브, 식물로 마을 환경 조성
- 사진교육
- 마을 사진 책자 발간

사업 소개

본 활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와 헌신하는 법을 배우며,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소통을 한다.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봉사정신을 기르며
친구들과 교감을 할 수 있다.

단체 활동을 통해 화합하고
사회적 어른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마을의 이해를 통해
자신이 마을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나눔을 통해 마을의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의 구성원인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다.

Design by 대일초등학교
마을동아리



느티나무
은명

대원중학교

탄천 산책길 | 도시 속 자연

장혜빈 | 이가은 | 장세은 | 최수하 | 신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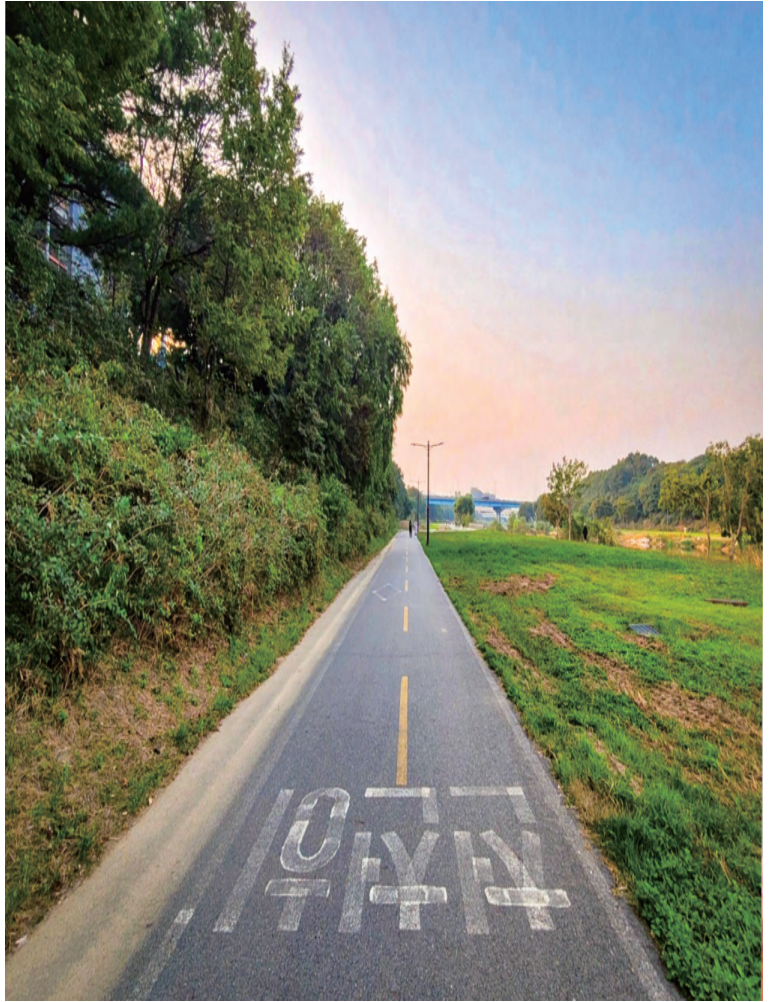
직진

장혜빈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한 길로만 직진한다.

천천히
장혜빈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
가끔은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야탑 탄천



야탑 탄천

안정
이가은

두 땅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있는 다리의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풍경을 보는 나도 편안해진다.



야탑 탄천

평화

이가은

노을빛으로 물든 탄천과 이름 모를 풀과 나무가 아름답다.

태양은 내 안에

장세은

태양은 내 안에
힘차게 달려간다.



대원중학교 정문 버스정류장



야탑 탄천

자연의 색

장세은

자연의 색은 다양하고 아름답다.



야탑 탄천

흘러가는 시간

최수하

조용한 물살과
시끄러운 물살이
섞여있는데도
조화롭다.
흐르는 탄천처럼
내 시간도
조화롭게 흘러가겠지.

저물어가는 태양,
그 아래 돌다리

최수하

고단했던 하루는 저물어가고
나는 쉬지 않고 나아간다.



야탑 탄천



그 태양 아래

신보영

빛 받아 반짝이는 탄천 물이 예쁘다.



그 다리 아래

신보영

다리 밑 그냥 지나쳤던 바위
자세히 보니 오밀조밀 예쁘다.

Design by 대일초등학교
마을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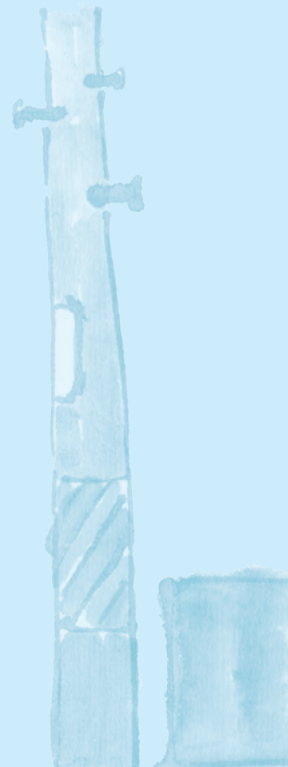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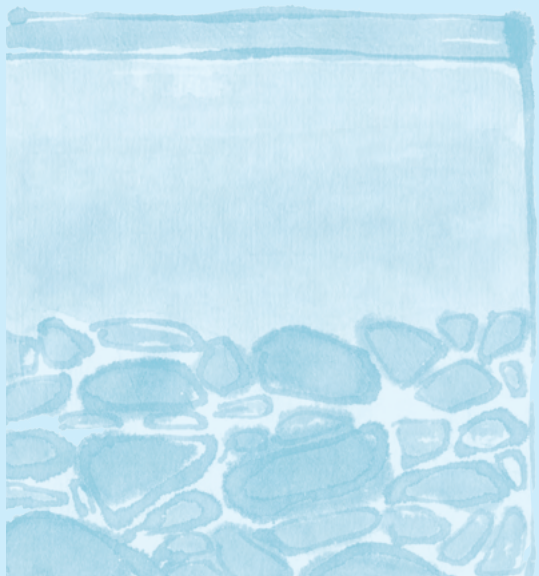


메리골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성남동중학교

길 | 사물 | 도시 속 자연 | 골목 | 모서리 | 거리

김보명 | 배정빈 | 송지원 | 이미키
이설아 | 이여진 | 오유경 | 정유리 | 조한희





금광동 골목

분위기 좋은 하늘

김보명

길을 가다가 하늘의 색도 이쁘고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사진을 찍었고
이 하늘을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되었다.

하교
김보명

성남동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모습을 찍었다.



성남동중 근처 골목

그라데이션

배정빈

하늘이 그라데이션처럼 보여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다.

자주 가던 길

배정빈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 찍으면서 발견했다.
골목 느낌이 내가 자주 다니던 길과 비슷해서
이렇게 정하였다.



금광동 어느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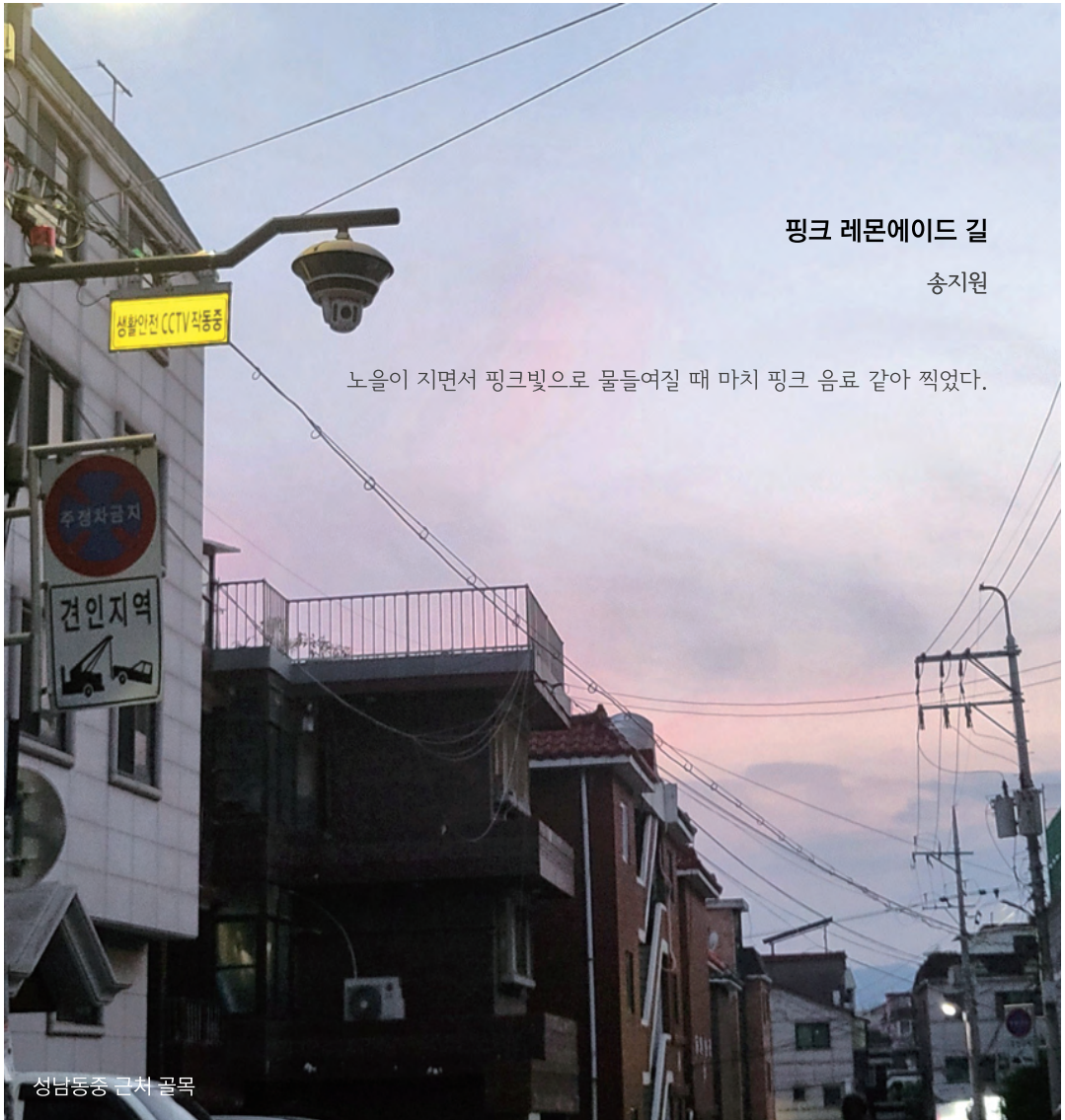
성남동중 근처 골목



노을 진 가을 아침 길

송지원

비록 오후였지만 그라데이션으로 물들은 하늘과 가을 아침처럼
선선한 날씨여서 기분 좋게 찍었다.



핑크 레몬에이드 길

송지원

노을이 지면서 핑크빛으로 물들여질 때 마치 핑크 음료 같아 찍었다.

성남동중 근처 골목



금광동 어느 골목

익숙한 골목

이미키

매일 보던 골목이지만 그날따라 한적한
골목이 평화로워 보였다.



금광동 어느 골목

평화로움

이미지

낮고 긴 건물이 멋지게 느껴지고, 멈춰있는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생기있게 보였다.



금광동 골목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골목길
이설아

어둠은 빛보다 약하다.

거울 밖에 보이는 세상

이설아

거울로 보이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성남동초 근처 골목

금광동 어느 골목



한적한 골목길

이여진

동네 한적한 골목길을 걸으며 찍었다.

그리운 골목길

이여진

언젠가 사라질 우리 동네 그리운 골목길



성남동초 올라가는 계단



등곳길

오유경

계단을 오르면서 하늘을 보았을 때
힘들었던 게 사라졌어요.

하꽃길

오유경

하꽃길 중 무심코 우리 학교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이건 꼭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남동중 뒷골목



신구대학교 근처 빌라 골목

빛

정유리

빛이 차를 비추고 있다.



성남동중 근처 골목

집 가는 길

정유리

집에 가는 길처럼 익숙하고 따뜻한 분위기이다.

금상로



금상로

조한희

색감이 좋아서 찍었다.



금광동

조한희

학원 가는 길에 찍었다.

Design by 대일초등학교
마을동아리



백년초

불타는 마음, 열정, 정열, 사랑

성남문원중학교

길 | 추억 | 섬의 공간

오현진 | 김태호 | 김승우 | 남궁훈 | 정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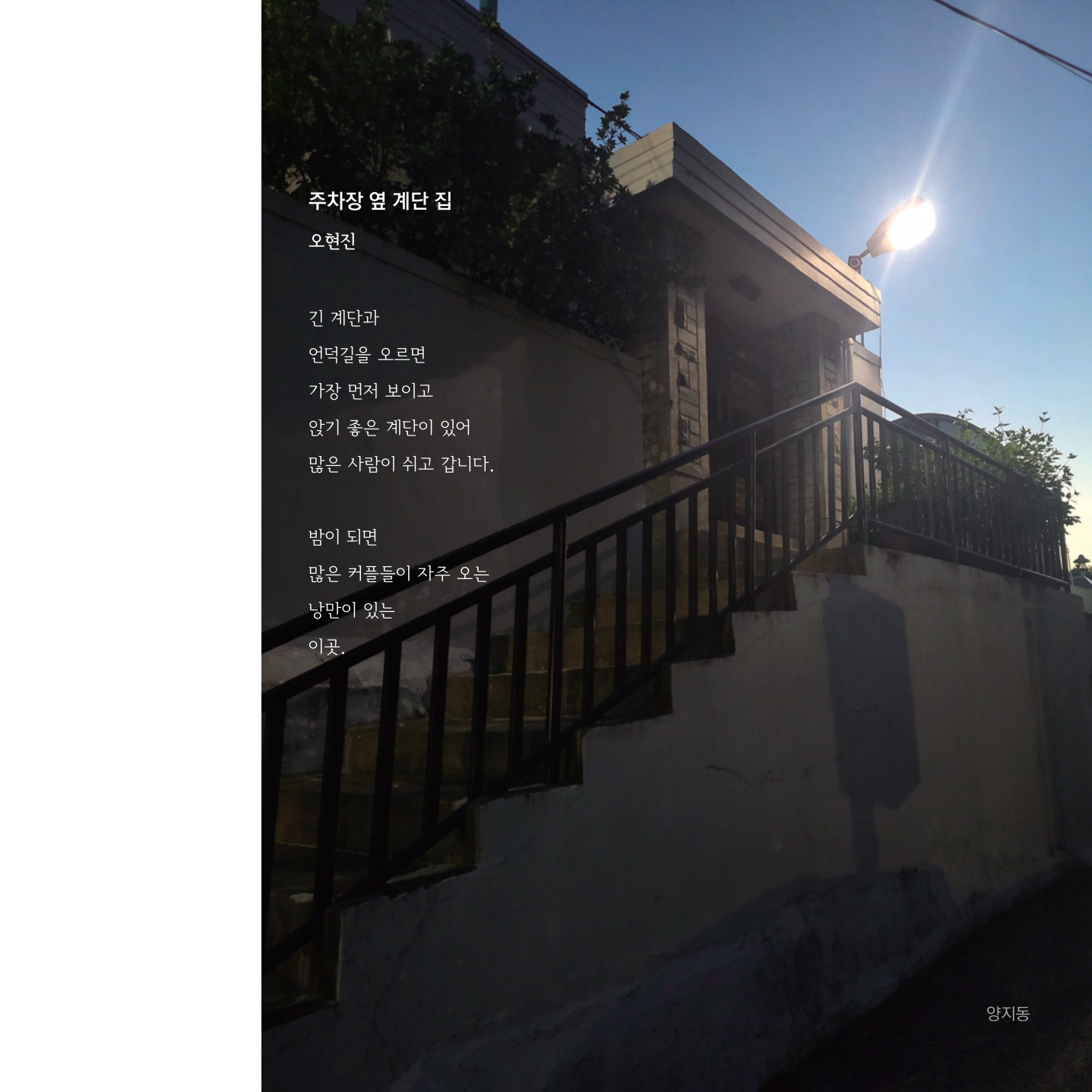


단대동 문원중학교 근처

등교 전 최고의 식당

오현진

우리 동네에서 등굣길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많은 학생들의 추억이 있는 곳.

A photograph of a house at dusk. The house has a prominent staircase with a dark metal railing leading up to the entrance. A street lamp is illuminated, casting a warm glow. The sky is a deep blue, and the overall scene is dimly lit, suggesting twilight.

주차장 옆 계단 집

오현진

긴 계단과
언덕길을 오르면
가장 먼저 보이고
앉기 좋은 계단이 있어
많은 사람이 쉬고 갑니다.

밤이 되면
많은 커플들이 자주 오는
낭만이 있는
이곳.



단대동

등곳길

김태호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길이다.
어쩌면 설레는 길일 수도 있겠다.



단대동

집 가는 길

김태호

이 길은
세상에서
제일
기쁜 길이다.
맨날 느껴서
모를 수 있는데
나는 그렇다.



다시 열어보는 추억

김승우

어릴 때 다니던 학교
중학교 생활이 힘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양지초등학교



두 번째 학교

김승우

어른도

아이도

서로 배우는 제2의 학교,

나도

여기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

양지동

오래된 간판

남궁훈

사진 속

세탁소는

사라졌지만

세탁소 간판은

몇 년이 지나도

남아있어

추억이 떠올라 좋다.

성안사
세탁
빨래방
734-8609

신보빌딩

은행동



작은 생물의 하룻길

남궁훈

사진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집에 갈 때
개미들도
자기 집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쉬어 가는 곳

정우진

학교 갈 때
늘 이곳을 지나면
한눈을 판다.
계단 길
사람이 없고
한가해서
마음이
편해진다.

눈뜰문



양지공원 잔디운동장

우리들의 놀이터

정우진

밤 9시쯤

학원이 끝나면

거의 매일

친구들과 이곳에서 만난다.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달리고.

캄캄한 곳에서 밝게 빛나는

시계탑의 불빛을 보면 기분이 좋다.

Design by 대일초등학교
마을동아리



은행나무

장엄, 씩씩하고 웅장하며 위엄 있음

성남은행초등학교

중원마을 아이들의 행복 찾기

강수현 | 강한울 | 김서진 | 김서현 | 김채연
신민재 | 이지온 | 정수정 | 정희호 | 진다현





은행동

행복은 감성

강수현

행복은 감성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감성 사진은

너무 예쁘고,

예쁜 것은

저를 행복하게 하니깐요.



은행동



남한산성

즐거운 일상

강한울

행복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보내는 일상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은행동



은행동

빠빠빨간 맛

김서진

행복은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행복한 추억들을
가족과 함께
쌓았기 때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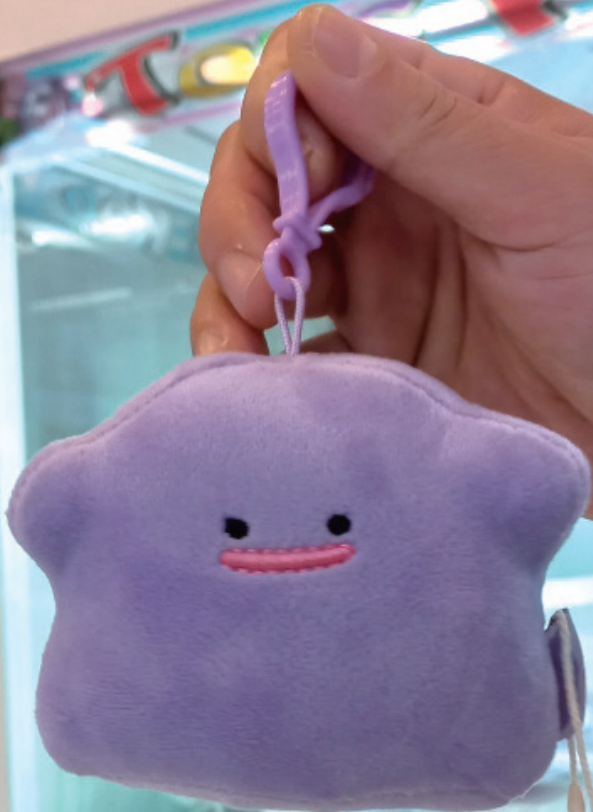


은행동

나 찾아봐라

김서진

행복은 가을이에요.
왜냐하면
서늘한 날씨들과
알록달록한 단풍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형님

POKÉMON 33 POKÉMON

제1회 전국동·서·남 지방 시·도별 초등학생 미술 대회

본 대회에 참가하여 작품을 출품하신 학생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본 대회에 참가하신 학생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기념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작품을 출품하신 학생에게 상품을 증정합니다.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TF)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TF) 지역별 협력 기관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TF) 지역별 협력 기관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TF) 지역별 협력 기관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TF) 지역별 협력 기관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TF) 지역별 협력 기관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TF) 지역별 협력 기관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TF) 지역별 협력 기관

이 형님

인형 뽑기

김서현

행복은 인형 뽑기입니다.
왜냐하면 인형을 뽑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
좋기 때문이에요.



은행동



성남은행초

포벤저스

김채연

행복은 친구예요.
왜냐하면 평생
함께할 것처럼
행복하니까요.

행복한 산책

김채연

행복은 강아지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은행동



행복동이 강아지

신민재

행복은 우리 집
강아지 포도예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귀엽기 때문입니다.

은행동



성남은행초



친구와 딱딱딱

이지은

행복은 친구예요.
왜냐하면
친구는 햇살처럼
따스하기 때문이죠.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정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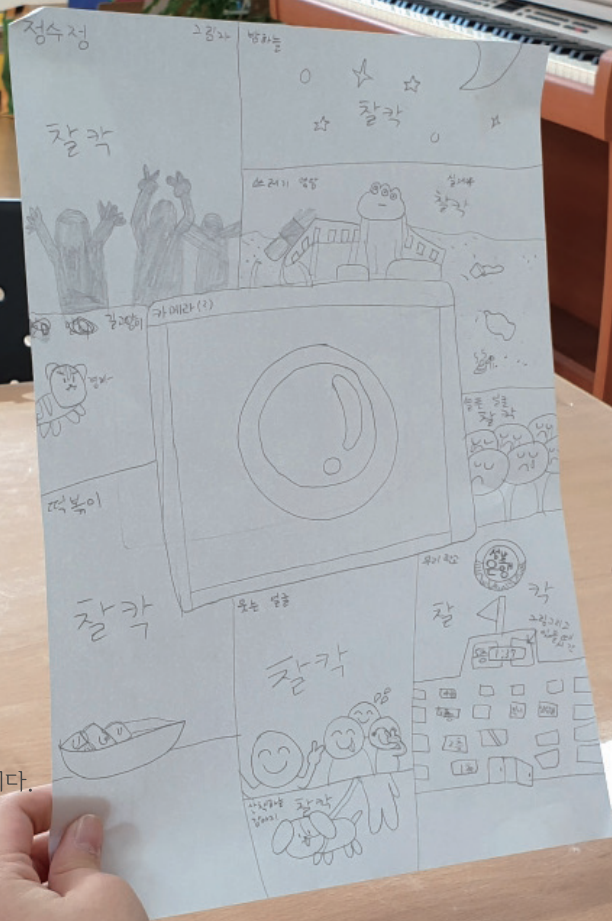
행복은 취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

저절로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남은행초







은행동

미소 천사 내 동생

정희호

행복은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보면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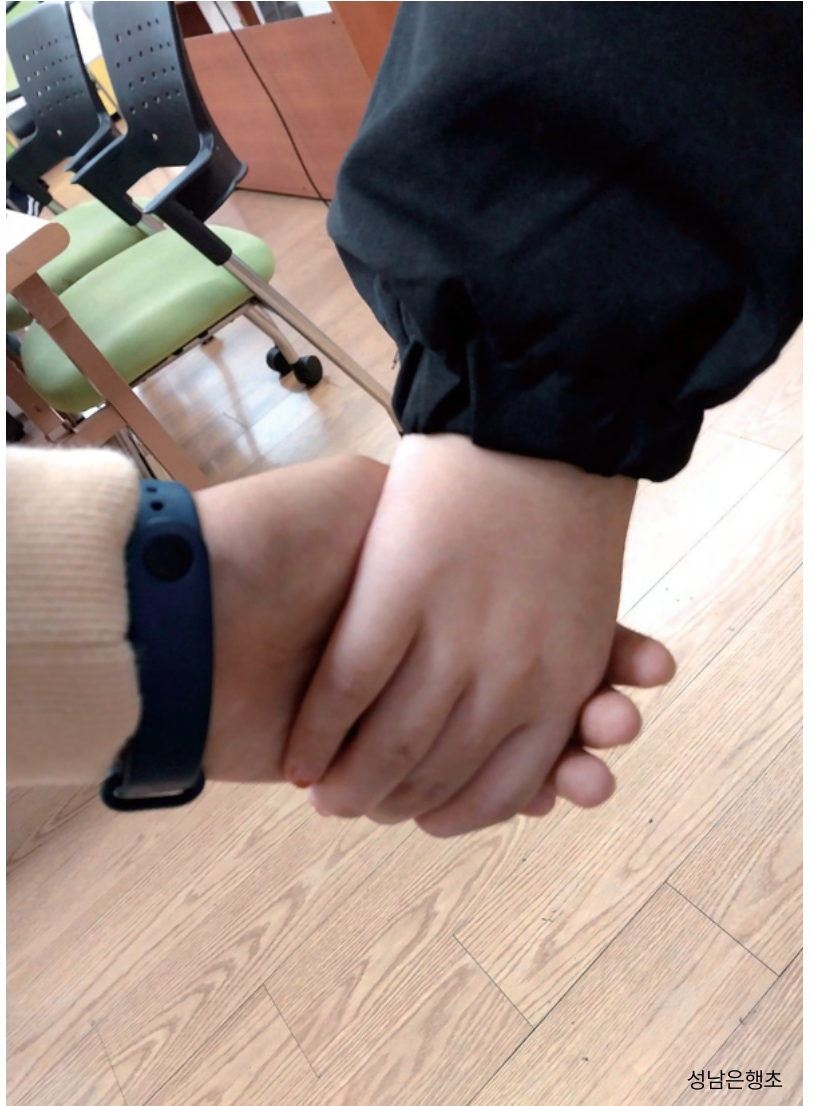
성남은행초



친구

진다현

행복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랑 놀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은행초

Design by 대일초등학교
마을동아리



달맞이꽃
무언의 사랑, 기다림

금광청소년문화의집

길 | 골목 | 모서리 | 거리 | 사물 | 도시 속 자연

선민호 | 이수민 | 이은우 | 이초운 | 정승조 | 홍성백



논골로



집으로 가는 길

선민호

순식간에 집에 도착할 것만 같다.



...으로 가는 길

선민호

어디로 가는 길일까?



은이로 43번길

경계

이수민

자연과 우리의 삶에서
경계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자연의 자리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위해

이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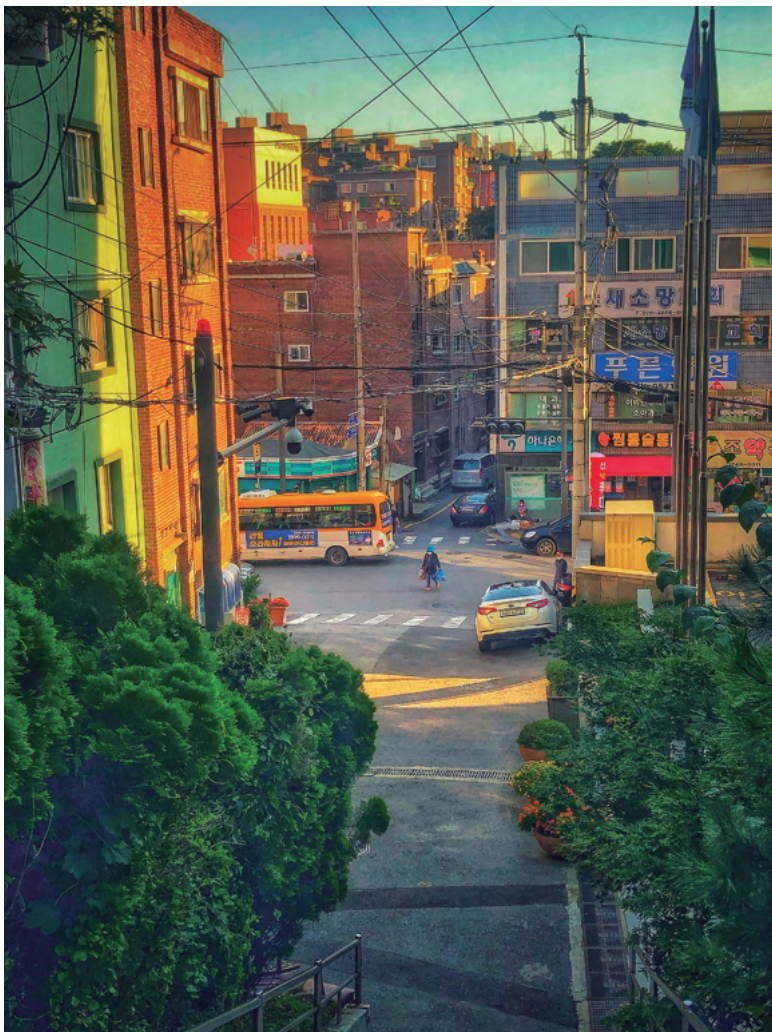
여유로워 보이는

사진 속

홀로 짊어지는

짐의 무게에

마음이 간다.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입구



수정로

과정

이은우

정렬되어 있는

모든 블록이

흐트러진

과정이다.

집중
이은우

외벽 너머 있는 것도
집중하면
알아볼 수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문원중학교

산성대로

개미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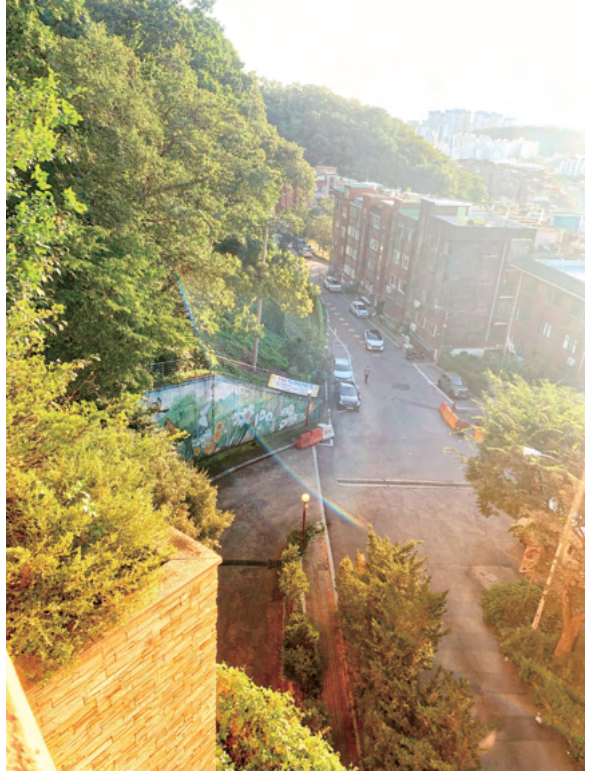
이초운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이 사진을 찍으면서
‘개미는
이런 시선으로
이 도로를
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새들의 길

이초운

‘새들은
날아다닐 때
항상
이런 곳을 보나?’
생각하며
이런 곳을
저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은행2동제4공영주차장



산성대로

빈부격차
막혀있는 '부'의 길

정승조

한 공간 안에
'빈' 과 '부' 가
극명하게
대조된다.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막혀있다.

무음

정승조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

반사경은

외롭고

쓸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은행주공



은행2동제4공영주차장

식물의 장악력

홍성백

도시 속

공영 주차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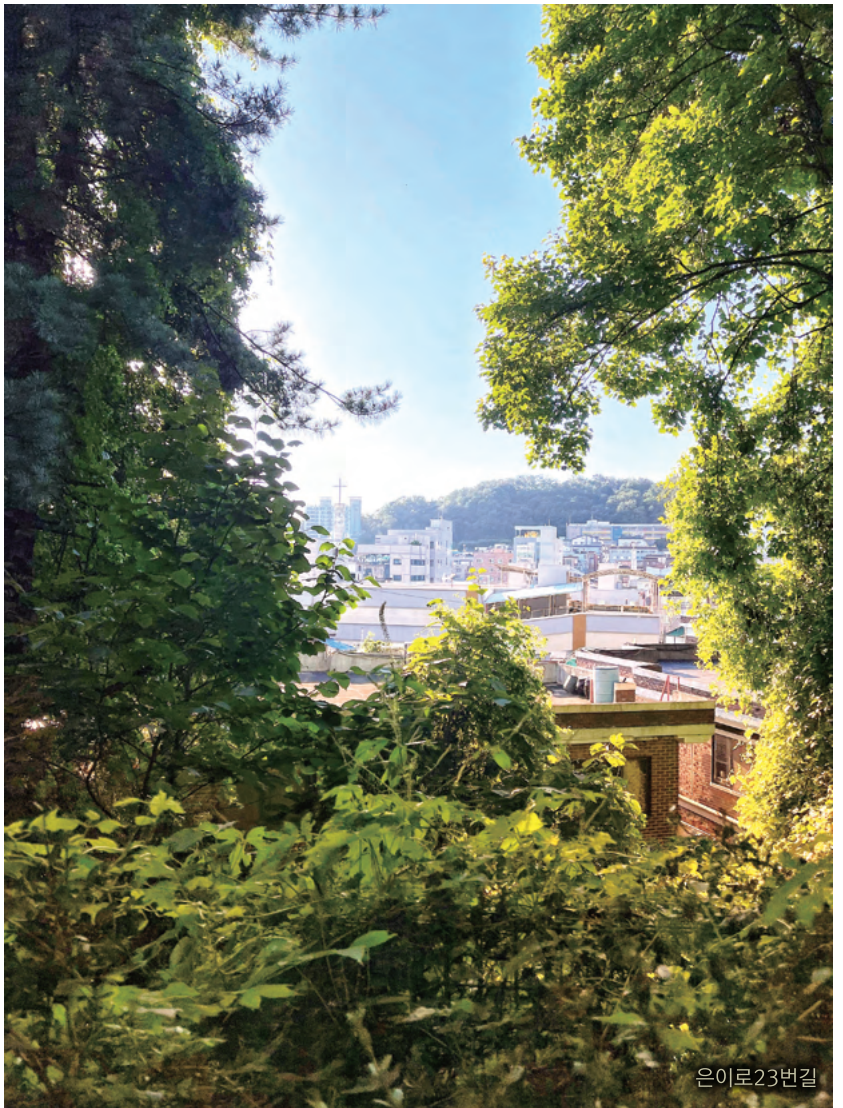
식물에

잠식당했다.

사이 속

홍성백

집에서
창문 너머의
풍경을 보듯
숲에서
그 너머로 보이는
도시
사이 속의
도시



Design by 대일초등학교
마을동아리



느티나무
운명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

마을 사람들 | 마을 전경 | 마을 고양이

김은경 | 손태희 | 이가온 | 이하음 | 한상현 | 현다은





상대원 시장 삼일사

열쇠 가게 사장님

김은경

상대원 시장 상인회 회장이자
열쇠 가게 사장님. 꼭 필요할 때
찾게 되는 분이다.

우리의 기억

김은경

내가 기억하고 있는 행운 마트의 모습.
미래의 행운 마트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재개밭이 되면
이 모습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라지는 마을

손태희

나는 예전 마을이
그립다. 내 추억이
재개발로 인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
재개발되는 곳들을 보면
그때가 떠오르고 이곳은
그리워할 추억이 있는
곳이 되었다.

우리 마을
반짝이는 간판
손태희

나는 지금 마을이 좋다.
밤이 되면 반짝거리는
거리가 무척 마음에 든다.
저녁이 되면 우리 마을의
빛나는 간판들을 보며
집으로 들어가곤 한다.
우리 마을이 마음에 든다.



금광1동 신구대 사거리



예쁜 고양이

이가온

예쁜이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길고양이이다. 그럼에도 간식을 먹으러 오는 모습이 예쁘다. 오른쪽에 예쁜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컵도 눈에 띈다.

우리 마을 고양이

이가온

이 고양이는 레고라는
이름의 길고양이다.
예민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 사진에서는
레고가 주인공이다.
얼마 전부터 레고가
보이지 않는다.
레고가 돌아와서
입양되었으면 좋겠다.



상대원동 서안교회



넝쿨 먹은 빌라

이하음

빌라가 넝쿨을 먹고 있다.



따뜻한 골목
이하음

마을에서 막혀 있는
골목은 처음 보는 것 같다.
골목이 따뜻해 보인다.



황송마을아파트

여름
한상현

아파트가 나무에 안겨 있다.



황송공원

한눈에 보이는 마을

한상현

등하곳길 매일 보는 풍경이다.
이곳에서 보면 마을이 한눈에 보인다.

은행중학교



시작 현다운



끝 현다운

Design by 대일초등학교
마을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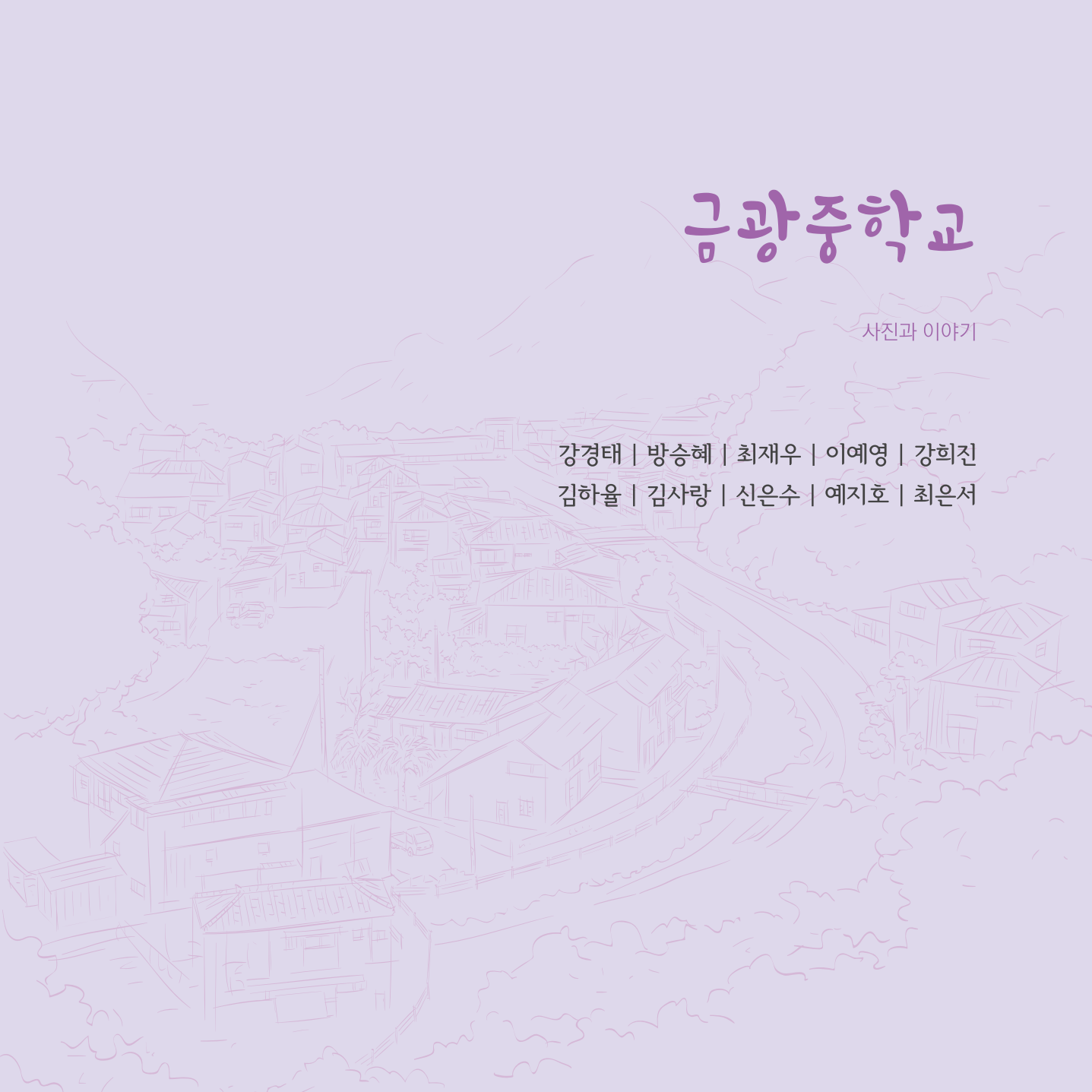
해바라기

일편단심

금광중학교

사진과 이야기

강경태 | 방승혜 | 최재우 | 이예영 | 강희진
김하울 | 김사랑 | 신은수 | 예지호 | 최은서





빵 향기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성남에 아주 멋진 뷰(view)~를
자랑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은 마실 커피 한 잔만 가져온다면
멋진 전망, 맛있는 빵 냄새와 함께 살찔 걱정 없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



상대원2동 꼭대기 공터



하지만 빵 향기와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복불복이랍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빵 향기는 저기 공단에 있는 샴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데, 빵 굽는 시간이 항상 달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늦은 오후 8시쯤 그곳에 가보세요.
 빵 향기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 한번 경험해 보시길~



○○여고의 ‘물의 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남에서 50년
역사를 가진 한 여고의 이야기.

1990년대 ○○여고에서는
매주 수요일 ‘물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 ‘물의 날’이란
온종일 학교에 물이 나오지
않는 날!!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무래도 화장실이었겠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당시 재래식 화장실이었던
학교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화장실을 이용함에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체육 시간이
있던 밤에는 끔찍한 하루였지요.



금광동 00여고

물의 날에 지금은 자취를 감춘 오래된 펌프가 학교 언덕 위에 있어 조금의 물만 있다면 활활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네요. 그날의 진풍경으로 펌프 앞부터 길게 줄을 서 있는 학생들이 모습. 학교를 오랫동안 지키셨던 경비 아저씨는 물의 날에 대해 알고 계시다며 한 1998년쯤에 그 펌프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시며 펌프가 있던 장소와 바뀐 개수대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왔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1982년 10월 15일에 머선129?!

성남에 많은 보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이가 150년부터 550년까지 성남을 지켜온 보호수들이 17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정된 보호수 중 1개를 제외한 16그루가 모두 1982년 10월 15일에 지정되었다는 사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많은 보호수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누구에 의해 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판교동 한림플에버9단지



하대원동 호야경로당 앞

이렇게 지정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주택들 사이에 덩그러니 우뚝 서 있는 멋진 나무들을
성남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어디에 보호수가 마을을 지키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판교동 한림플래버9단지



판교동 미르어린이공원



고인돌이 진짜 있을 수 있는 거임? 성남에?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전 세계 고인돌 약 6만여 기 중 약 3만~4만여 기 정도가 한반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무지막지한 돌덩이가 막았고 치우기도 너무 커서 그냥 안에 두고 지었는데 알고 보니 고인돌이었다고 하는 집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마을에서도 고인돌이 있지 않을까요?

검단산을 오르며 커다란 바위들이 자연스럽게 얹어 놓은 모습에 고인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생각에 호기심이 생기고 고인돌에 대해 찾아보고 검단산의 고인돌을

함께 공유해 봅니다. 사진으로 보면 크기가 가늠이 안 되
지만 저 바위의 크기가 무려 가로 4m, 세로 4.4m, 높이는
3.7m이더라고요. 어때요? 고인돌 같으신가요?

검단산 어디쯤



저는 도적이 아니라 의적 아티스트예요.

의적 임꺽정을 아시나요? 임꺽정은 조선시대 명종 대의 정치 혼란과 계속된 흉년으로 관리의 부패가 심해져 민심이 흉흉해지자 불평분자들을 규합,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관아를 습격하고 창고를 털어 곡식을 빈민에게 나누어 주는 등 의적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임꺽정의 이러한 행각에 백성들이 호응하면서 관군의 토벌이 있으면 미리 정보를 알려주어 자신들의 근거지를 확보하며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의 보호수 중 상대원 공단 뒤편 보통골에 있는 5백여 년 된 두 그루의 상수리나무 아래가 옛날 의적 임꺽정의 생활 터전(소굴)이라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하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지역에 신출귀몰 출몰하여 조선 전역을 다니며 의적 활동을 하는 임꺽정은 체포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을 헤집고 다니면서도 3년 동안이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설과 영화, 드라마로도 제작될 만큼 유명한 옛날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였던 곳이라고 생각하니 임꺽정의 자취를 찾아보고자 주변을 더 둘러보게 되네요.

상대원동 동성교통 차고지



아름다운 성남에 군수공장에~

이 군수공장 이야기는 1986년도 언저리에 당시 국민학교를 다니던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성남에 정말 군수공장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군수공장이었던 동양정밀은 통신기기 제조업체로 73년에는 국방부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장비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공장으로 주로 군용무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른 기업(삼0전자)이 그 자리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의 시가지 외곽으로 규모가 크고 비밀스러운 군사시설들이 존재하는 덕분에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군사보호 구역이 64%나 달한다고 합니다.

1980년대 당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마을에 훈련장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동네 뒷산에 훈련하러 자주 왔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총소리가 들리고 연막탄 터지는 것도 볼 수 있었고 공수부대가 낙하산 훈련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답니다. 군인들의 행군도 자주 있었는데요. 훈련병들이 도로를 지나갈 때 긴 행군에 지친 군인들에게 A자형 물 펌프 같은 걸로 물 바자기에 물을 떠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군인들이 몰래 달려와 마시고 고맙다며 가지고 있던 건빵 한 봉지(별사탕이 들어간 군부대용)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 건빵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저도 그때의 건빵 맛이 궁금합니다!

상대원동 사기막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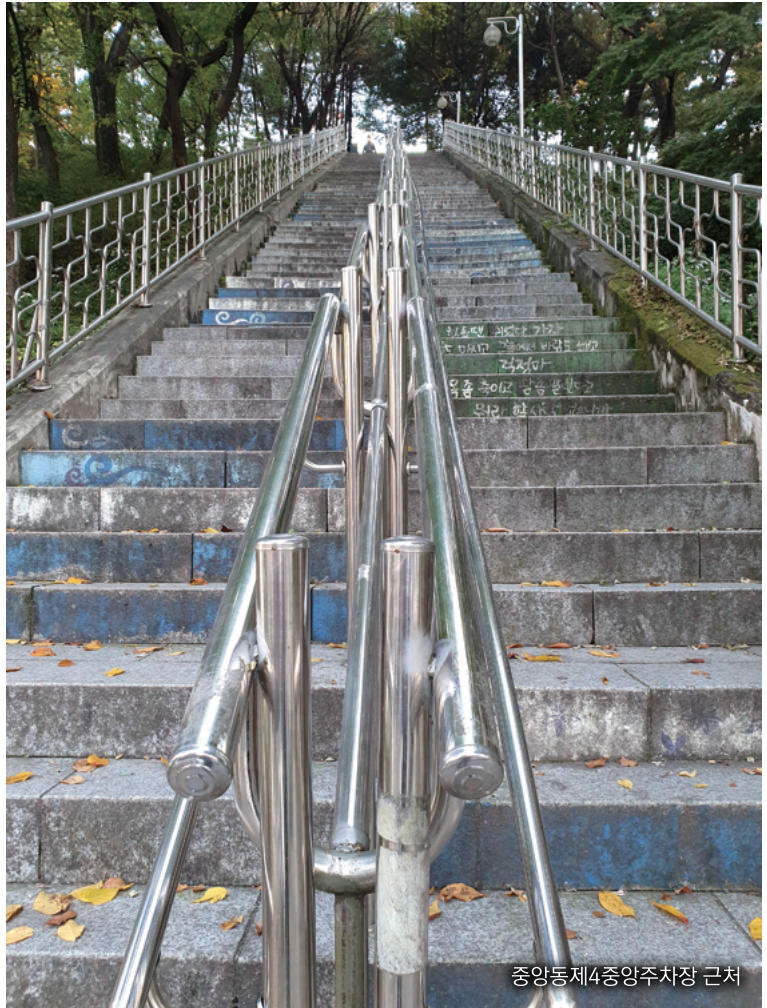
천국으로 가는 계단

우리 성남시에는 가파른 언덕길과 계단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남 전체를 둘러보아도 언덕 지형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언덕을 깎지 않고 그대로 건물을 올린 흔적이랍니다.

우리는 평평한 땅에 오밀조밀하게 세워진 아파트를 흔하게 보고 있지만 성남은 들쭉날쭉하게 세워져 있다는 게 성남만의 개성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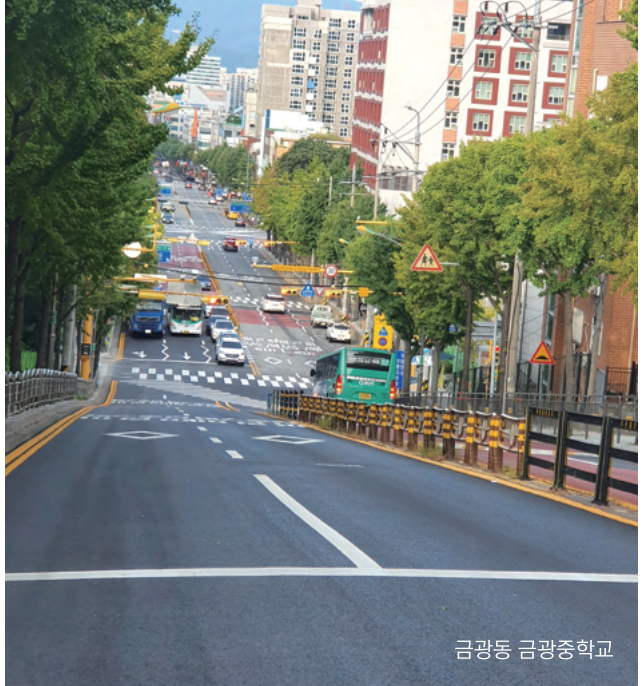
이처럼 여러분도 성남의 어디를 걸든지 만날 수 있는 언덕, 경사들! 그냥 언덕이라고 힘들다고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과 재미있는 계단들도 많답니다.



중앙동제4중앙주차장 근처



상대원2동 언덕동네



금광동 금광중학교

또한 가장 높은 언덕 끝까지 올라가 보면 서울에 있는 산들도 보이고 맑은 날에는 남산 서울타워도 보인다고요. 이러한 지형으로 재미있는 속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남이 물에 잠기면 대한민국 전역이 다 물에 잠긴다는 속설, 성남에서 운전 몇 년을 하게 되면 어떤 곳이든지 운전을 잘하게 된다는 속설, 그리고 거리에서 자전거와 살찐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이러한 가파른 언덕과 계단들로 우리의 다리근육까지 건강하게 키워주는 성남의 급경사와 계단은 성남만의 개성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하답니다!

놀이터에 나타난 그림자



상대원동 궁전아파트 근처

항상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던 장소가 있습니다.
넙찍한 공터의 오래되어 방치된 놀이터!!

놀이터는 시설이 낡아 위험하지만, 돈을 들여 수리하기엔 가는 사람이 적어 못 들어가게 조치만 하고 방치했다고 하네요. 처음 놀이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동네 아이들의 신나게 놀면서 약속의 장소이기도 했을 놀이터였을 텐데요... 지금은 을씨년스럽게 방치된 놀이터에 다시 활력을 넣어준다면 동네 아이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어도 몇 명의 아이들을 위해 놀 수 있는 공간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을 지켜온 오래된 상점들! 금강산 몇 번이 바뀐거임??

성남을 지켜온 우리 동네의 세월을 알 수 있는 추억의 상점들!

이제는 간판도 다 떨어졌지만 여기기는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슈퍼, 문방구랍니다.

그중 하원초등학교 옆에 있는 풍년 서점 문구점은 무려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원초등학교 학생들이 계속 즐기다 보니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상대원2동 언덕위 슈퍼



상대원동 중원초등학교 근처



이 문구점의 사장님은 항상 친근하시고 따뜻하게 대하셔서 아이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주변의 건물이 오래되어 재건축하고 있지만 곳곳이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을 반겨주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보기 좋네요. 항상 미소로 아이들을 반겨주는 풍년 서점 문구,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며 풍년 서점 문구점이 계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남들이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집에 살면 기분이 좋거든요~



상대원3동 행정복지센터 근처

성남시는 1970년대 철거민이 세운 ‘구름 위의 도시’라고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인데요. 도시가 세워지면서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중 집의 가장 먼저 보이는 대문의 문고리인데요. 1970대 당시 시가 형성되며 집들이 지어지고 그 집들에 그 당시 유행했던 사자머리 모양 문고리!!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1970년대 대부분 주택의 철제 대문의 패션을 선도하던 사자머리 문고리는 성남에서도 대유행이었나 봅니다. 오래된 철제 문에는 어김없이 동그란 고리를 물고 있는 사자머리가 대문을 지키고 있으니깐요. 아무래도 집을 지키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 이후 화폐 장식, 꽃 장식, 기다란 철제 손잡이로 바뀌었지만 용맹한 얼굴로 무장한 사자머리 문고리처럼 대문에 대유행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고리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상대원3동 행정복지센터 근처



상대원2동 대원초등학교 근처

상대원동 드디어 임종

드디어 상대원도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좋은 거라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성남에 처음 터를 잡고 시멘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지금의 터전을 만드셨다는 동네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별로 유행했던 건물들, 집들의 창문, 문고리, 벽돌 그리고 옥상이 다양하게 있는 곳!! 100년 200년 세월은 아니지만 30년 40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뛰어놀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역사를 쌓아오신 곳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멋지게 변할지 기대도 되지만 서운하고 쓸쓸한 마음도 드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상대원2동 재개발지구





Design by 대일초등학교
마을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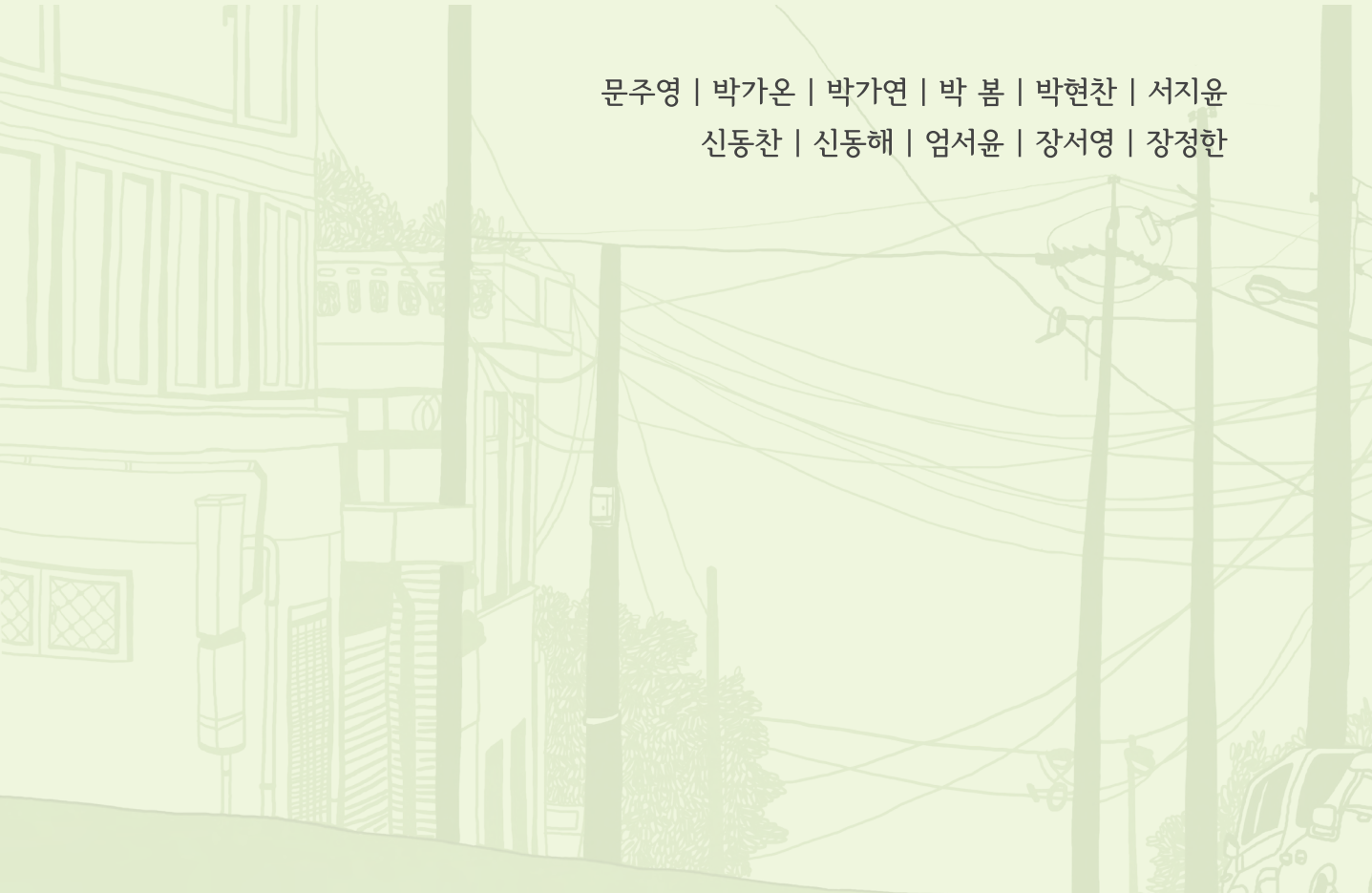


등나무
환영

대일초등학교

너구리원정대 | 너를 구하는 리틀 히어로

문주영 | 박가온 | 박가연 | 박 봄 | 박현찬 | 서지윤
신동찬 | 신동해 | 엄서운 | 장서영 | 장정한



「배워서 나누고 나누며 배우는 너구리」

지난 6월 너구리원정대 친구들은 봉사하는 청소년 리더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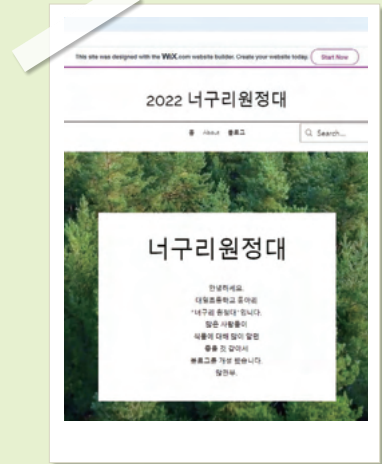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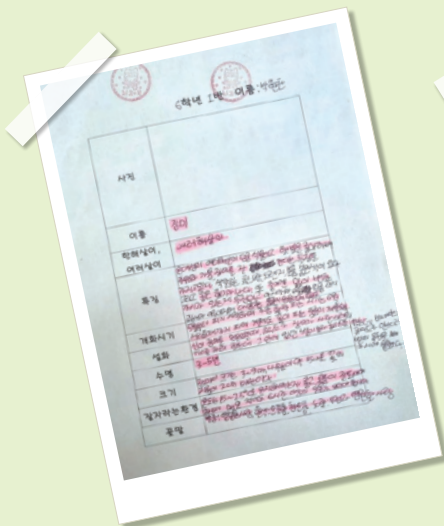
너구리원정대 친구들은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해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 함께 고민하였고, 그 결과 [식물]을 주제로 하여 마을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원예 수업에서 식물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우리 마을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매주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결정했습니다.

너구리원정대 친구들은 다양한 식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의 예쁜 식물들에게 이름표를 달아주었고,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식물과 학교에 있는 식물을 하나씩 정하여 식물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식물을 직접 그리고 색칠하며 식물의 꽃말을 책갈피에 담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책갈피 뒷면에는 QR코드를 함께 제작해 식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웹페이지로 접속하여 누구나 식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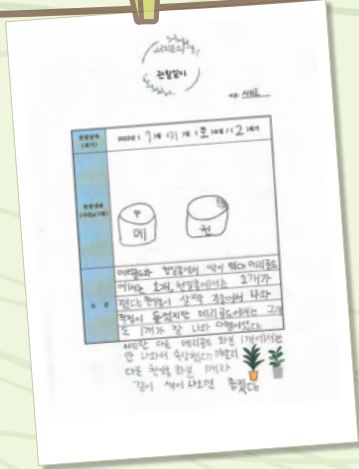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너구리원정대의 정성으로 자라나고 피어난 식물들은 마을의 예쁜 화단으로 거듭났고 6개월간의 봉사 활동은 마을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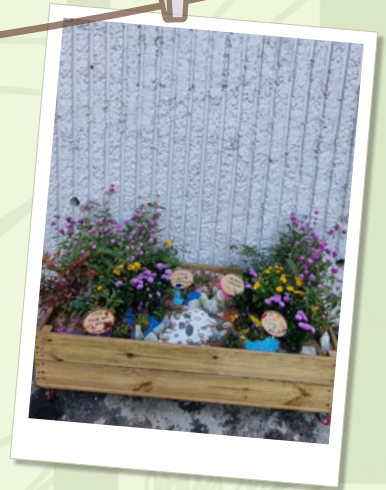




관찰일지



Before · After



Design by 대일초등학교
마을동아리



라일락

첫사랑, 젊은날의 추억

상원초등학교

깨끗한 마을 만들기

김민희 | 안서윤



또래상담자동아리‘또래미’학생들과 함께
식물을 키워서 우리 마을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장소에
화단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원예교육을 받아서 메리골드, 천일홍, 남천을 받아
집에 가져가서 키우면서
자라나는 과정을 카톡으로 공유했습니다.
잘 자라고 있다고 찍어 난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고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서로 질문하면서 관찰일지도 작성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고
곰팡이가 생긴 식물도 있었지만
그중에 살아남은 식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만든 화단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미소 지었으면 좋겠고
깨끗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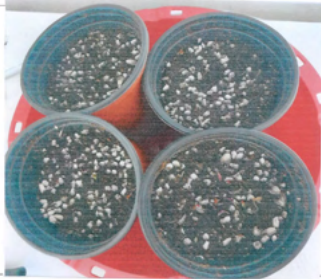
활동사진



관찰일지

관찰날짜
(회기)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 (2)회기

관찰내용
(사진or그림)



소 감

행복을 줄 것이고 난들이 살아보다 시간이 더 길게 지낸다.

다른 실험도 실패 있었으면 좋겠다.

키 - 제일 간게 3.3그램도.

관찰날짜
(회기)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 (8)회기

관찰내용
(사진or그림)



소 감

내일이면 쉼게 자서야하 라면서 마약의 물을 준다.

신경을 잘 써진 못했다.

근력도 저질같은 걸 마셨던 같다.

Before · After



마을화단조성

Design by 대일초등학교
마을동아리



채송화
천진난만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수자인금광

식물들과 함께 자라요!

민서윤 | 이보영 | 장민준 | 최유리 | 최유진 | 황려원



「희망을 심다」

올해 여름,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런 탓에 식물을 센터 내에 두고 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3개를 제외한 나머지 화분들은 곰팡이가 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실망하여 점차 본인들의 관심에서 화분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교사는 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아이들과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화분 좀 봤어? 잘 자라고 있어?"

라고 하니 세모는 "저 지금 좀 보고 올게요"라고 하며 화분으로 달려갔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라고 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선생님, 살릴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보자"

"씨앗을 사서 다시 심어요!"

"심어져 있는 걸 나눠서 다시 심을 순 없어요?"

등등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며칠 후, 화훼농장에 들러 자문을 구하고 살아있는 화분을 가지고 오면 예전처럼

여러 개로 나눠서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와서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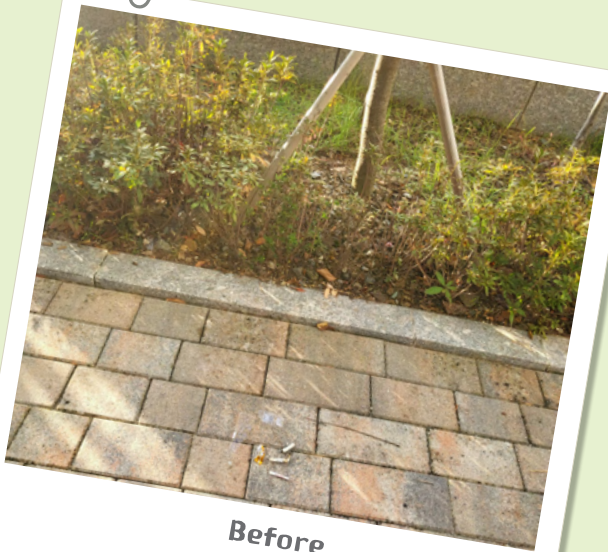
관찰일지

관찰일자 (회기)	2022년 (7)월 (26)일 (목)요일 / (1)회기
관찰내용 (사진or그림)	
소감	씨앗이 빨리 자라면 좋겠다.♥ 그리고 걱정되는 점은 씨앗이 안 자랄까 봐 걱정됐었다. 께

관찰일자 (회기)	2022년 (6)월 (10)일 (수)요일 / (4)회기
관찰내용 (사진or그림)	
소감	새 학기 무척동안에 잘 키우고 스트레스 확! 풀었다. 두었다면 걱정도 되는 것

Before · After

마을화단 조성



Before



After

Design by 대일초등학교
마을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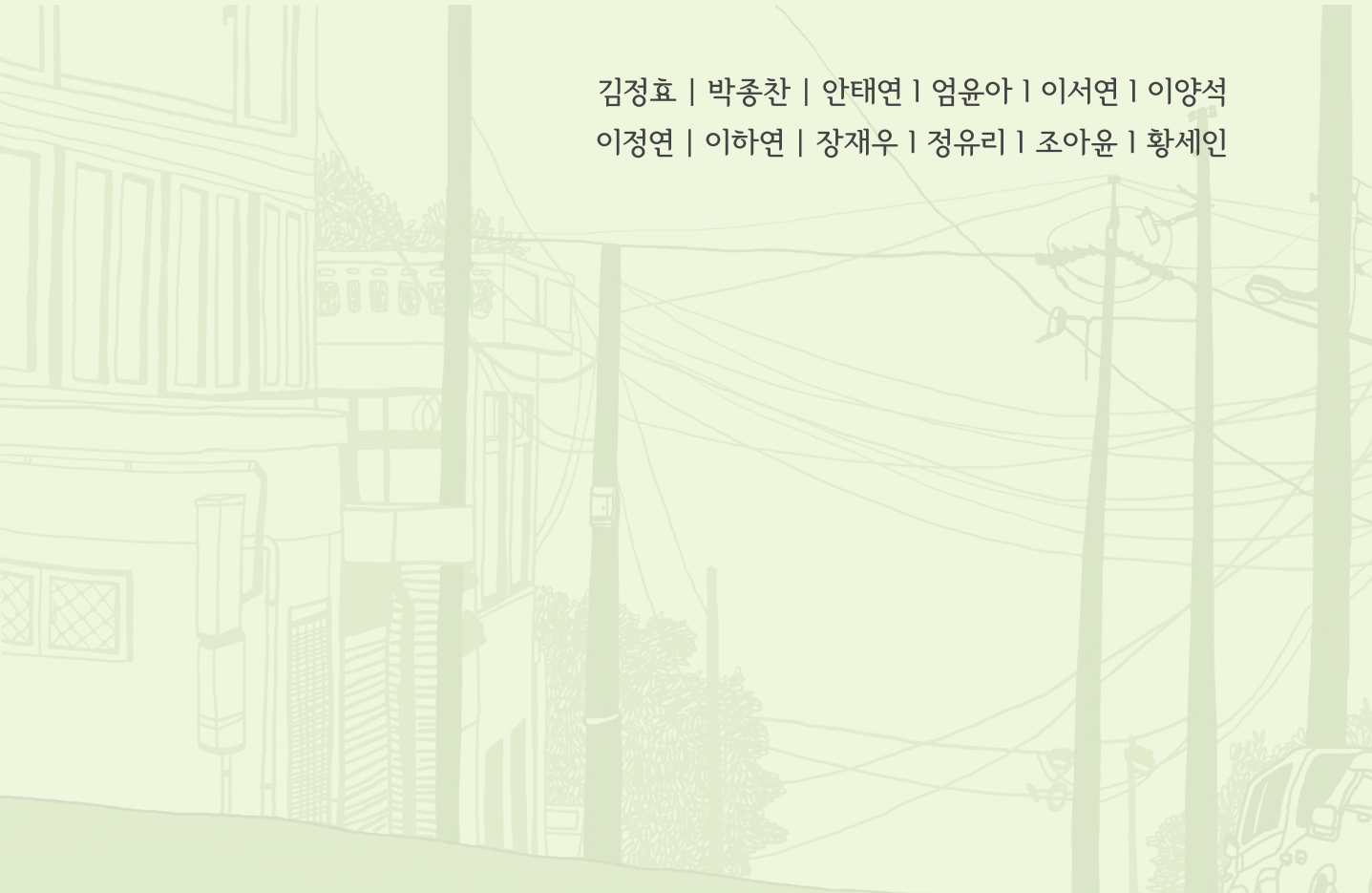


장미
행복한 사랑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화단조성으로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요!

김정효 | 박종찬 | 안태연 | 엄윤아 | 이서연 | 이양석
이정연 | 이하연 | 장재우 | 정유리 | 조아윤 | 황세인



「작은 손길의 힘」

곳곳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로 인해 환경을 해치고 있는 요즘, 아이들은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자 다 함께 모여 화단 조성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화단 조성을 위해 직접 모종을 만들고, 아이들이 집에서 모종을 키우며 식물 관찰일지도 작성했는데요 :)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몇 개월에 걸쳐 직접 키운 식물을 화단에 옮겨 심으며 아이들이 만든 화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무단 투기한 쓰레기로 가득했던 공간에 완성된 화단을 두며 깨끗한 마을로 변신했습니다. 변화된 공간을 보며 아이들은 식물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기쁘다는 소감도 전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긍정적인 변화로 길가에 쓰레기가 줄어들고, 쾌적한 환경이 되길 희망합니다.


활동사진



관찰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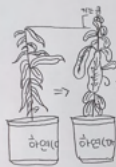
관찰일지

이름: 성수진

관찰일자 (회기)	2022년 (9)월 (3)일 (도)요일 / (5)회기
관찰내용 (사진+그림)	
소감	<p>키가 훨씬 자랐고 잎의 크기가 커졌다. 안에 새로운 싹이 조금만 나왔네.</p> <p>왜냐하면 약간 시들어서 걱정했는데 다행인지 잘 자랐고 또 새로운 싹이 돌아와서 클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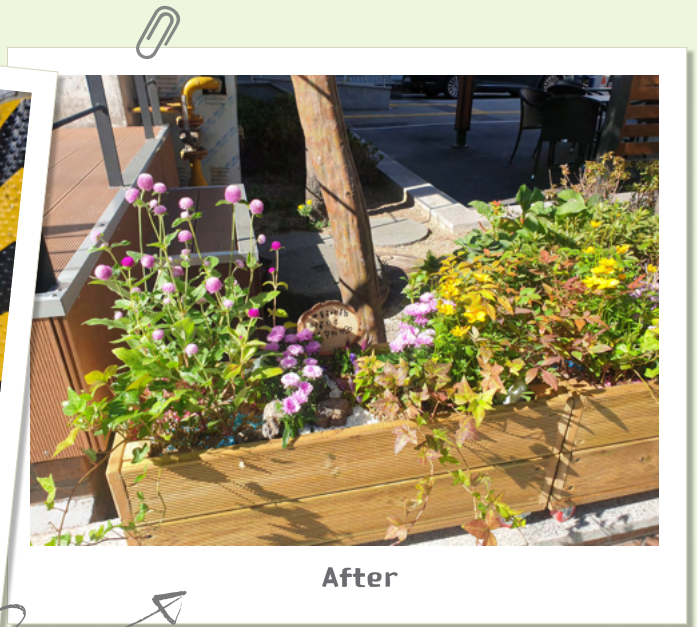
관찰일지

이름: 이준연

관찰일자 (회기)	2022년 (9)월 (15)일 (월)요일 / (8)회기
관찰내용 (사진+그림)	
소감	<p>개만 된 4개 더 자랐고 잘은 물론 1개 자라났다. 공기 관리는 2시간 정도 하면 것 같았다 물을 많이 안 줘서 그런지 거의 다 말들어 흙 쉰 것이다.</p> <p>하지만 그 흙은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게 지금의 나의 모습과 닮게 되었다. (4분아 물을 맘대로 안주고 못 살거잖아 미안해 ^^ 암튼은 신경내며 생겨줄게~ 그리고 잘 살아있어 귀여 20마리~ 자면서 좀 잘 자라라~) 이 글을 쓴다</p>

Before · After

마을화단 조성



에필로그 · epilogue

여러 가지 사진 수업을 하면서 재미있기도 했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진 교육은 어렵긴 했지만 알고 나니 기뻐했습니다. (어쨌든 재미 있었습니다!)

- 서현 -

우리가 책을 만들었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사진도 감성 있고 이쁘게 잘 나와서 좋습니다.

- 채연 -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중원 마을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곳들을 알게 되었고 미래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진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동아리원들과의 우애도 돈독해졌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라도 이런 활동들을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 서진 -

마을의 모습, 역사와 이야기, 생명,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 책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귀하네요~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 상희 -

너구리하면서 아동 권리 축제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도와줘서 고마워, 선생님 감사합니다.

- 가온 -

식물에 이름표를 달 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서는 조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재미 있었습니다.

- 주영 -

너구리 활동을 하면서 식물도 심어보고 축제도 하면서 재미있고 신기한 활동들이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너구리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봄 -

모든 활동이 재미있었습니다.

- 동찬 -

너구리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 동해 -

의미 있고 또 하고 싶습니다.

- 가연 -

언니, 오빠, 친구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지윤 -

처음 했던 식물 교육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화단 만들기에서 마찰이 있긴 했지만... 아동 권리축제는 힘들기도 했지만 아주 뿌듯하고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하면 좋겠습니다.

- 정한 -

화단 만들기에서 강사님의 설명이 좋았고, 뿌듯했고 보람 있었습니다. 책갈피 만들기는 많은 학생이 우리가 만든 책갈피를 사용할 수 있어 보람이 됩니다. 축제는 많은 활동이 있어 즐거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 현찬 -

아동에게 있는 권리를 축제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서 좋았습니다.

- 서영 -

식물 심는 것도 보람되었고 직접 심어보니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환경도 조성해 보니 뿌듯했습니다.

- 서윤 -

이번 사진 활동으로 관심이 없을 때는 몰라서 지나쳤던 우리 동네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습니다.

- 현진 -

평소 아무렇지 않게 찍던 순간들이었지만 학생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서 카메라를 조금이나마 가까이 접하게 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각자의 느낌과 개성으로 찍는 걸 보면서 사진에서 느껴지는 학생들의 마음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될 것인데 그 현재를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본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것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길 바랍니다.

- 경섭 -

유난히 무더운 이번 여름, 사진 강의를 듣던 아이들의 기대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생각납니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 매일 오가며 접하는 일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은 신선하면서도 정감이 가득합니다.

- 남숙 -

힘든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마을을 둘러볼 시간과 여유가 언제 있었을까. 이번 기회로 우리 마을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밤에는 밝게 빛나고 있는 달과 간판들을 볼 수 있고, 낮에는 정겹게 지나다닐 수 있는 마을이란 걸 이 책을 읽는 분들도 느끼길 바랍니다.

- 태희 -

마을의 오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마을의 스토리를 탐구하는 것, 마을을 더 나은 모습으로 가꾸는 것, 마을을 위한 이 같은 기여활동이 나의 삶의 자산이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호선 -

함께한 학교·기관들

대일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성남은행초등학교

금광중학교

대원중학교

성남동중학교

성남문원중학교

금광청소년문화의집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수자인금광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성남교육지원청

청소년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중원마을을 부탁해

마을과 우리, 2022

발행인 장다교

편집인 김경섭 김혜진 나남숙 박인주 박지원 유인정 이겨레
이경숙 이상희 이호선 임진영 장정현 허정윤 홍 진

발행처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

후 원 성남시청소년재단

디자인 플러스디자인하우스 ☎1688-2057